

# SK, 황제식 경영 벗어나고 있다!

## 구조조정본부 해체 후 독립기업 연계 ... 삼성-한화도 지각변동 예상

SK그룹이 그룹체제 유지의 핵심조직인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키로 함에 따라 이른바 황제식 경영으로 대변되던 국내 재벌그룹 체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SK그룹은 <기업구조 개혁방안>을 통해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는 대신 각 계열사별로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체제를 가속화하고 앞으로 각 계열사 간 관계를 “SK 브랜드와 기업문화를 공유하는 독립기업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람직한 기업모델로 제시한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채택한 것이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6월12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과의 만찬 기조발언에서 재벌 소유구조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그룹마다 처한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 라고 전제한 뒤 >지주회사체제 >브랜드와 이미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느슨한 연계체제 >독립기업 분리나 전문업종별 소그룹 분화 등의 방안을 예시했다.

SK그룹이 택한 “브랜드와 이미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느슨한 연계체제”는 각 계열사 별로 SK라는 브랜드는 공유하되 과거 기획조정실이나 구조조정본부 등을 통해 오너가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던 황제식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SK그룹 관계자는 “구조실이나 구조조정본부 등이 사실상 오너의 황제식 경영을 보좌 하는 친위대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고 독립경영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과거 재벌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SK그룹은 당초 SK를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회사 체제를 염두에 두었으나 계열사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 확보하려면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워 “브랜드와 이미지를 공유하는 느슨한 네트워크”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K그룹은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더라도 브랜드를 공유하는 각 계열사 간 업무조정 기능을 할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와 또다른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이 기능을 분담해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지주회사격인 SK에 <사업관리실(가칭)>을 신설해 구조조정본부가 수행하던 계열사 간 업무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독립경영체제 운영을 위해 2005년까지 독자생존 기반이 없는 계열사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등 상호 윈-윈(Win-Win) 관계의 유지가 어려운 회사는 정리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그룹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손길승 그룹 회장은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그룹이 구조조정본부 해체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삼성과 한화 등 아직 구조조정본부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여타 재벌그룹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Chemical Journal 2003/06/19>